

하반기 사우회 행사 일자 확정

**낙시대회 9월 28일(수), 골프대회 10월 11일(화)
등산대회 10월 19일(수), 바둑대회 11월 3일(목)**

2016년 하반기 행사 일자가 확정됐다. 첫 행사는 9월 28일(수)에 열리는 **낙시대회**로, 장소는 2일전에 발표한다. **골프대회**는 10월 11일(화) 충북 진천 에머슨CC에서 열리는데, 10팀(40명)으로 제한하며 신청방법 등은 추후 통보한다. **등산대회**는 10월 19일(수)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데 당일 오전 10시 우

이동 아카데미하우스 종점에서 집합한다. **바둑대회**는 11월 3일(목)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밖에 **송년모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회원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사우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장묘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사우회는 회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장터를 전문으로 하는 추모공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8월 24일 오전, 경기도 연천에 있는 <중앙추모공원>에서 이진경 대표와 장묘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갖고 MBC사우회원들의 장묘시설 이용에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사우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5천여기에 이르는 수목장지와 잔디장지,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개장한 <중앙추모공원>은 기존 형식의 납골당 시설을 비롯해서 7천여 평에 이르는 수목장지와 잔디장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장묘공원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현장 답사 후 선호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된다.

사무처는 회원들이 희망할 경우 현장



<협약서를 교환하는 이진경 대표와 이연현 회장>

답사를 안내하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우회보 제호를 바꾸면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청량한 가을이 옵니다.

사우회보의 얼굴이었던 <社友會報>의 제호를 한글체 <사우회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창간호(2009년 10월15일)부터 유희근 회원의 서예 필치는 사우회의 전통과 MBC의 혼을 기리는 명품 서체로서 사우회에 빛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회보 전체는 한글판인데 제호만 한자로 하는 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론화 해 본 결과 한글 제호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번 제37호 회보부터 새로운 한글 간판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겸하여 상단 우측의 MBC 사시 <自由,責任,品格,團合>를 창간 때 썼던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로 한글 제호와 어울리게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복지를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하나는, 서울 강남 소재 GS안과와 협의하여 회원의 정밀 안과 검진 및 제반 안과 질환 치료시 회원 본인과 가족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백내장으로 확진되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 기본 수술비(36만원 한도)는 사우회에서 회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9월 13일 현재 30

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이미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호응이 큰 자연장터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사우회는 <중앙추모공원>(경기도 연천 소재)측과 협의하여 회원 여러분의 장묘행사 필요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중앙추모공원>은 수목장과 잔디장 그리고 납골당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장묘 사업을 신규로 개장하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장의비용으로 자연장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복지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사우회 재정의 밑받침이 되는 주변 여건들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 따라 사무처는 예산 절약을 위한 다양한 긴축 운영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제호를 성의껏 제작해 준 김진홍 회원에게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우회장 이연현

해요 TV - 라이칸싱 누적 시청자 1000만명 달성

iMBC

Global Content & Platform Leader

참여형 모바일 플랫폼 '해요!', 중국 한류 플랫폼 '라이칸싱(來看星)', MBC 다시보기, 인터넷 라디오 'mini', 영화, 연예스포츠뉴스, 해외직구, 게임 등 iMBC는 시청자와 MBC가 만나는 디지털 접점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55 (상암동 문화방송미디어센터 10층) T.02-2105-1100
www.imbc.com

눈이 밝아졌습니다



김희을 (기술)

금년 들어서면 서 시력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백내장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할 병원을 알아봤으나 마음에 흡족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사우회보(36호)에서 ‘사우회,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이라는, 삼북더위 속에서 눈에 번쩍 띄는 시원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GS안과를 방문한 첫 인상은 병원 시설이 매우 청결하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대규모 검사장비들을 보면서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해서, 2호선이나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바

로 GS안과가 있는 건물 출입구와 연결이 됩니다.

8월 3일 검안 결과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8월 9일 왼쪽 눈, 10일 오른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백내장수술은 수술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가까운 곳을 볼 때는 안경을 쓰고 먼 곳은 안경을 안 쓰든지 또는 (2)가까운 곳을 볼 때는 안경을 안 쓰고 먼 곳은 안경을 쓰는 것.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자신이 평소 원시인지, 근시인지(어떻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를 선택했고, 김무연 원장의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원하는 대로 시력을 되찾았고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더구나 신통한 것은 평소

시(수술 전)에 착용하던 안경이 그대로 맞다는 것입니다.

8월 9일 수술 받는 날, 보호자로 동행한 아내(김승자)도 검안을 한 결과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8월 16일 오른쪽 눈, 17일에 왼쪽 눈을 수술 받아 1주 간격으로 부부가 모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GS안과에서 수술을 받은 분들은 박종진, 이영환/윤병임 부부, 오학식, 이연구, 김희을/김승자 부부, 남의균, 이동엽 회원 등이고, 수술 예약을 한 회원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흔한 안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지고 흐릿해져도 ‘나이 먹으면 으레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

극적인 생각을 갖고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사우회가 복지차원에서 사우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 시라고 권합니다. 소중한 눈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신다면 오늘과는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주는 사람이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고 기쁘게 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에 기쁜 선물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사우회에서 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 해주신 분들과 GS안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친절하고 소상하게 안내해주신 김현지 상담팀장, 집도 해주신 김무연 원장, 자료를 제공해주신 박유나 홍보팀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이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시그니스 아시아’ 라디오세미나에 다녀와서



김승월 (편제)

‘회사 그만두고 나가봐야 회사가 얼마나 좋은 줄 알게 된다’는 선배님 말씀 그대로 다. MBC를 나와 보니 MBC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 방송사 장비를 둘러보니 MBC 방송장비가 얼마나 고급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공동체 라디오 BBM-FM의 아주 소박한 라디오 스튜디오를 보고는 ‘회사 다닐 때 그 좋은 장비를 감사하며 잘 쓸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가톨릭 활동을 하다 보니 어쩌다 ‘시그니스서울’ 회장을 지냈다. 시그니스(SIGNIS)란, 방송, 영상, 미디어 교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단체다. 바티칸에서 공인한 세계적인 조직으로, ‘시그니스월드’ 아래 ‘시그니스아시아’, 그 아래 ‘시그니스서울’이 있다. ‘시그니스서울’은 MBC, KBS, SBS, EBS, PBC에 근무하는 방송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3년 전부터는 ‘시그니스

아시아’(아시아 가톨릭커뮤니케이션 협회) 이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동안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송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열린, ‘시그니스아시아’가 주최한 라디오세미나에 발표자로 다녀오게 됐다.

내가 발표한 첫 번째 주제는 ‘오디오 특성과 오디오 콘텐츠 제작’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리 생각 못하다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만 하다 보니 좀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소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프로그램 만들 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소리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소리에 영향 받습니다.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로 만든 라디오 프로그램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강조한 이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소노라 라디오>로 방송되었다(위 사진). 내 목소리에 음악이 깔려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들으며 잠깐 흥분했다. 하지만 내 자신 현업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소리가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 준다는 생각을 제대로 했을까?

더 민망한 것은 반응이다. 같은 발표자였던 이탈리아 페브리오 신부는 ‘라디오 세미나에서 소리를 강조해 들은 것은 처음’이란

내가 말한 제작에서 말의 ‘사이’를 조절하라는 기법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다른 라디오세미나에 가면 소리를 소개하겠다고 자료를 부탁하기도 했다. 얼떨결에 오디오 전도사가 된 기분이다. 말을 자주 하다 보니 들떠서 힘 좀 준건데 과분한 반응이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소리 연구도 해 볼 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세미나라서, 우리 말이 아닌 음향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를 들려줬다. 2000년에 만든 5분짜리 음향 다큐 <끝없는 시도>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자기가 만든 도자가 맘에 들지 않자 도자기를 깨고 또 깨며 고민하는 이야기다.. 줄거리를 설명하고 들려주었더니 그럭저럭 알아들은 듯했다. 한 참석자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생생한 음향에 전율을 느꼈다’고. 음향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프랑스 소리 사냥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내가 음향 다큐를 만든 건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음향 프로그램도 한두 편 더 만들어 둘 걸 그랬다.

경 · 조사

■ 구순 ■

곽창곤(미주)11/27

■ 팔순 ■

정형진(관리)10/10 송영대(보도)10/12 강의원(전주)10/19 오정수(기술)10/20
천기정(업무)10/27 최창일(관리)11/14 임창영(관리)11/15 김영재(업무)11/16
백낙왕(대구)11/19

■ 고희 ■

정국록(보도)10/01 마병두(편제)10/11 김일중(관리)10/13 김영식(기술)10/16
정병운(보도)11/06 최영돈(관리)11/19

■ 회갑 ■

이주갑(편제)10/04 장한진(관리)10/06 윤정식(보도)10/08 지덕환(관리)10/10
홍순흥(편제)10/15 김형철(보도)10/21 이광열(편제)10/23 윤경진(편제)11/07
유봉희(관리)11/12 정호준(기술)11/18 이은실(편제)11/19 김상균(편제)11/23

■ 결혼 ■

정철영(보도)차남06/18 하경목(기술)차남08/06 남두우(편제)장남08/27
윤창호(편제)장남08/27 윤 진(기술)아들09/03 구본학(보도) 딸 09/04
김흥기(편제)차녀09/24 김수량(기술)장남09/25 정진민(관리)장남09/25
이종숙(관리)차녀10/08

■ 부음 ■

황경자(ANN)시모상07/06 류종현(보도)부친상07/13 김만섭(기술)상배07/21
이해성(보도)모친상08/05 이성수(관리)장인상08/10 임경수(편제)장인상08/10
김흥기(보도)장모상08/10 전춘옥(관리)부친상08/11 이기준(관리)모친상08/12
최한상(관리)장인상08/12 오순심(편제)모친상08/24 김일만(편제)장모상08/27
윤권중(기술)부친상09/02 김대관(관리)장모상09/06

■ 회원 탈퇴 ■

윤 수(편제) 08/03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姜秉文(편제)	010-8745-3114	서초구 본마을길
文哲虎(보도)	010-5384-0037	서초구 방배로37길 26-9
尹能鎬(보도)	010-5384-0039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 평생회비 ■

윤능호(보도)07/14 문철호(보도)07/25 강병문(편제)08/08

■ 연회비 ■

7월 : 김경일('16) 오주환('16) 임동훈('16) 황기찬('16)
8월 : 김점용('16,) 김춘규('16, 80세 납부 끝) 서동식('19~20, 80세 납부 끝)
신병호('13~16, 80세 납부 끝) 오순심('16) 육창웅('10~16) 이기준('13~16)
이시권('18~20) 이화욱('13~19, 80세 납부 끝) 전용수('17)
9월 : 김병수('13~16, 80세 납부 끝) 김성수('12~13) 박광성('14~17)
장정기('15~16) 최우철('15~16)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김영철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29번길
김점용	경기 양평군 지평면 거처리길
박정섭	강원 춘천시 남산면 동촌로
윤영관	마포구 삼개로 33
장두문	광진구 자양로 28길 65
보도 : 최영언	부천시 신흥로 73번길
임병길	강서구 마곡서1로 81
기술 : 김문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윤상호	고양시 일산동구 고평로 72-11
주용국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12
업무 : 원정만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48
이화욱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42
관리 : 김순단	충남 공주시 성산1길
김애정	성남시 분당구 예원로 6번길 44
김영금	동두천시 동두천로 63
마동의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588
박기병	은평구 통일로 796
신승철	부천시 수도로 206번길 65-6
유흥철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18
이보근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28번길 15
이춘호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
이학귀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42
춘천 : 이명수	010-5368-470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성옥(편제)

7월27일 심근경색으로 별세. 향년 68세. 1980년 미술부에
입사하여 분장 업무를 담당했고 1990년 퇴직했다.



오상돈(기술)

8월 26일 신장암으로 별세. 향년 75세. 지난 3월, 암으로
진단 받았으나 늦게 발견되어 치료가 어려웠다. 1970년 기
술국에 입사하여 조명 분야에서 일했고 1998년 퇴직했다.

동/호/회/소/식

“영상 80”(회장 서태경)

보도국 11기부터 25기까지 전, 현직
카메라 기자 30여명은 8년 전부터 “영
상 80” 모임을 만들어 분기별 회동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6월에 이어
9월 모임은 26일(월) 7시에 ‘산들해반
포’에서 3/4분기 모임을 가진다.

이목회(회장 한웅희)

7월 14일, 강원도 철원 민통선 지역으
로 정기모임 겸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18명 회원 전원이 참석해 민통선 안
에 있는 유곡리 마을, 노동당사, 백마
고지 위령비, 끊어진 철길 등을 둘러
봤다. 이목회는 <문화.경향 시절 업무
출신 모임>으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낙시동호회(회장 이승문)

7월 14일 충남 아산 봉재낙시터에서
1차 밤낙시대회를 가졌다. 17명의 회
원들이 참가한 이날, 최고령회원 노서
을 고문이 32cm 월척 붕어를 낚아 우
승을 차지했다(사진). 이정오 회원과



정종국 회원은 똑같이 28cm의 월척
붕어를 낚았으나 고령자 우선원칙에
따라 이 회원이 2등을 차지했다. 이승
문 회장은 31.5cm의 붕어를 낚아 준
우승 순위에 해당됐으나 수상을 양보
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

회에서는 김종수 총무가 밤을 새면서
회원들의 뒷바라지에 나서 수고를 아
끼지 않았다.

낙시동호회는 또한 8월 18일~19일 2
차 밤낙시 대회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봉재낙시터에서 열었다. 14명이 참가
한 이날 대회에서 1등은 30.6cm짜리
붕어를 낚아 올린 이정오(기술) 회원
이 차지했다. 2등은 노서을(기술) 고
문이, 3등은 김휴선(보도) 회원이 각
각 27.5cm와 26.5cm 붕어를 잡아 차
지했다. 송재선(업무) 회원은 30cm의
향어를 잡아 행운상을 받았다.

회/원/동/정



박기병(관리)

6.25참전을 기리는 명패가 7월 30일 춘천MBC(사장 송재우)와 육군 제2군단(군단장 중장 김운용)에 의해 춘천 MBC 홍보관에 현액됐다. 박 회장은 춘천사범학교에 재학중이던 1950년 12월 17일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춘천지구 전투와 흥천 산마치 전투, 인제 관대리, 현리 전투, 양구 백석산 전투에 참전했으며, 백석산 전투에서 중공군을 격퇴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현재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홍보(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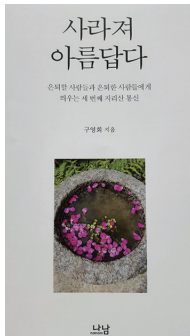
서울대 개교 70주년 행사 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행사 추진 아이디어 공모에서 대

상을 수상해 실무책임 맡게 되었다. 현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재직 중이다.



구영회(보도)

지리산을 배경 삼은 세 번째 수필집 <사라져 아름다다>를 출간했다. 구 회장은 작년에 출간된 두 번째 수필집 <힘든 날들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를 통해 이 시대의 힘겨운 젊은이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과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준 바 있다.



전영배(보도)

MBC C&I 사장. 7월 22일 광화문 '가온'식당에서 문기회 회원 30여명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 회장은 매년 한두 차례 문기회 모임의 스폰서를 자청해 선,후배들과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MBC C&I 사장. 7월 22일 광화문 '가온'식당에서 문기회 회원 30여명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 회장은 매년 한두 차례 문기회 모임의 스폰서를 자청해 선,후배들과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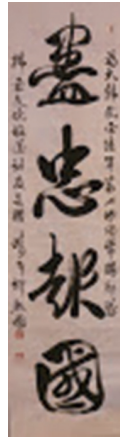
구종회(편제)

30년 넘게 국악프로그램 특히 '전주대사습놀이'와 '학생대사습놀이'를 만들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10월에 전북 전주시장으로 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실을 최근 밝혔다. 참고로 구 회원의 고향은 진주다.



유희근(보도)

육군 제7사단 상등부대장 병들에게 '충' (忠)을 다해 국가에 보답한다)이라는 휘호를 제작해 기증한다. 유 회원의 이 작품 (가로 50cm, 세로 1m)



은 사우회원들이 사우회 문화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9월 21일 전달하게 된다.



김문기(기술)

미국 시애틀 생활을 마감하고 10여년 만에 귀국했다. 김 회장은 7월 21일 바둑모임에 참석해 오랜만에 회원들과 한판 승부를 벌였고 뒤풀이에도 참석했다. 앞으로도 사우회 행사에 자주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문장환(기술)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자문관으로 프놈펜에서 근무하던 중 여름휴가를 맞아 일시 귀국, 친지들과 전직 동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무사히 임지로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광고를 유치하시면 수당을 드립니다

사우회는 현재 MBC 본사와 자회사에 편중돼 있는 사우회보 광고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외부 광고를 유치해 오는 회원들에게 광고 유치

수당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8월 31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광고계재를 외부로 확대할 것을 사무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당 지급

건은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제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내년 1월부터 본사와 자회사, 지방사의 광고를 제외한 순수 외부광고를 유

치해오는 회원들에게는 유치 광고료의 일정 비율을 유치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사우회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MBC PLAYBE
Global No. 1 Edutainment Company

키자니아 2호점, 키자니아 부산 오픈!
"MBC플레이비 키자니아는 NO.1 교육 콘텐츠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Kidzania
Korea



續 MBC에
문어들이야기

내가 만난 방송작가들



최정숙 (편제)

1964년 '미쓰 최'로 시작하여 1997년 '최 여사'로 마칠 때까지 33년의 MBC 생활도 벌써 20년 전의 일이 되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종일 자판을 두드리며 만난 PD, 방송작가, 성우, 효과맨 등 드라마 관계자들의 숫자를 세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려 150명이 넘는 방송작가들에 대한 기억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독특한 그 분들의 버릇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하는 유명 작가는 물론, 나중에 대가가 된 작가의 신인시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돼버렸다.

20대에 '영문타자 1급 자격'을 보유했던 내가 MBC에 와서는, 공병우 한글 타자기로 총무국에서 각종 서류와 광고회사에 보내는 청구서 영수증, 월급봉투와 라디오 드라마까지 눈코 뜰새 없이 하루 종일 두드려댔다. 그러다가 드라마가 멜로드라마, 일일 연속극, 흥드라마, 절망은 없다, 전설 따라 삼천리, 어린이 만화, 특집 등으로 인기절정을 달리면서 원고 분량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예 부서를 제작부로 옮겼다. 작가들이 써온 원고를 타



〈인사동 부조정실〉

이평하면 복사실로 옮겨져 성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대본으로 만드는 것인데, 처음에는 원고지에 쓰인 글자를 따라 타이프를 쳤지만, 어느 정도 작가들의 성향과 드라마의 줄거리를 알고 난 후에는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저절로 손이 움직여지니 '크로이 엔더슨'의 'The Typewriter' 멜로디가 내 손끝에서도 경쾌하게 리듬을 탔다.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을 글썽이고 달콤한 장면에서는 미소를 띠면서 '대본 위의 드라마'를 즐기는 나만의 특권을 그 누가 알겠는가. 쑥

스러운 고백이지만, 좋은 작품을 타이핑하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연기고픈 생각에 (성우가 되려고)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다.

먼저, 고인이 된 작가 몇 분을 회고해본다. '인목대비', '남사당' 등을 쓰셨던 **이서구** 씨(사진)는 맞춤법하고는 상관없이 소리글로 써오셨는데, 집필할 때와 녹음할 때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도합 세 번 우는 '자아



도취 눈물'로 유명했다. '빨간 마후라', '현해탄은 알고 있다' '여성 실화극', '사랑의 계절'을 집필했던 **한운사** 씨(사진)는 일본 친구에게서 받은 질 좋은 모조지로 된 400자 원고지에 중간 굵기의 몽블랑 만년필로 쓰기를 즐기셨다. 원고 쓸 때만큼은 몸에



꼭 끼는 셔츠를 입어야 하고, 내가 두드리는 타이프 소리를 들어야 긴장감 때문에 더 빨리 써진다고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그림다. 1961년 개국 때 연속방송극 '밤의 속삭임'을 시작으로 하여, 1991년 신춘특집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집필할 때까지 제일 오래 라디오 드라마를 쓰신 **차범석** 씨(사진)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맞춤 원고지나 질 좋은 원고지를 사용할 때도 꼭 문방구에서 파는 빨간 줄 쳐진 원고지에 볼펜글씨로 한국적 개성이 뚜렷한 사실주의와 사회성 강한 작품을 주로 집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뜨거운 꽃잎', '해는 또 다시 뜬다'를 집필한 **이인석** 씨는 송곳으로 원고지 문치에 구멍을 뚫어 벽돌색 리본으로 묶은 다음 부인을 시켜 원고를 보내왔다. 인기 드라마 '법창야화'를 집필한 작가 **최 풍** 씨는 일주일 분 원고를 한꺼번에 쓰되 '주중 3일간 낮에만'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창야화 500회 사은퀴즈 때는 밀려드는 엽서를 매일 우체국 큰 포대로 트럭이 싣고 오는 진풍경을 연출했는데, 오직 '법창야화' 하나에 올인하던 분

이 정치바람을 타고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두 번 출마, 낙선한 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다. '왕비열전'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의 비화를 주로 써온 전직 고교 古文교사 **김영곤** 씨는 언제나 자상한 아버지 같은 넉넉함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해 연탄가스 중독으로 오랜 병고를 겪다 별세했다. 가곡 '기다리는 마음' 작사로 유명한 **김민부** 씨(사진)는 아침 흥드라마를 집필했다. 역대도 메지 않은 바지 위로 셔츠가 나와도 별로 개의치 않던 그는 첫술질을 안하는 걸로도 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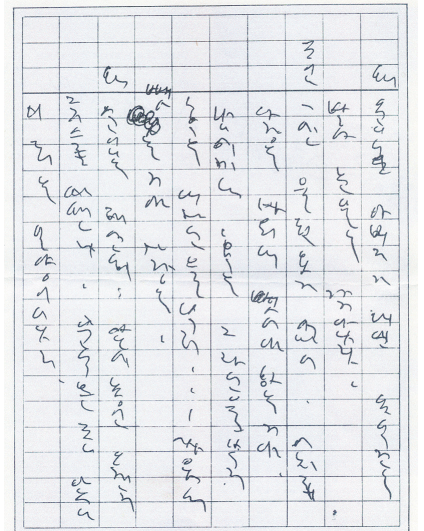


났지만 내가 건네는 커피 한 잔에 함박웃음을 짓던 모습이 선하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31살 때 자택 화재로 명을 달리 했다.

7월 말 주부터 일주일 동안 성우들이 휴가를 가는 7월이면 사전 녹음 때문에 작가들 원고 받기가 쉽지 않은데, 납량 특집극 괴기드라마 '유령 옷을 벗고 오다'를 집필한 **김관봉** 씨는 31회 원고 전량을 7월 중순에 써와 성우 배역은 물론, 이틀 만에 녹음을 끝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작가들 중 달필로 소문났던 **이경재** 씨는 도수 높은 안경과 친근함이 묻어나는 분이셨는데, 굵은 몽블랑 만년필로 '재일교포' '난중일기' 등을 집필하셨다. '행복의 계단' '내 뭇까지 살아 주'를 썼던 **이성재** 씨는 유독 효과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시나리오 작가 **장사공** 씨는 '비단이 장사 왕서방'으로 등단한 후 '새 언니' '조국과 사랑'으로 드라마에서도 큰 몫을 했다. '순덕이' '홍순이(방송대상 수상작)'같은 푸근한 고향의 향수와 감동의 감칠맛 나는 드라마를 썼던 **이재우** 씨는 매번 원고를 넘긴 뒤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60년대 드라마 효과는 주로 '개 짖는 소리' '다듬이 소리' '기적소리' '짜리문 여닫는 소리' '대문 여닫는 소리' '옛장수 가위소리' '빨래터 방망이 소리' 같이 우리의 옛 소리를 정감 있게 들려줬는데, 7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효과소리도 '자동차, 비행기, 아파트 현관 문, 전화벨 소리' 등으로 바뀌었다. 1974년 개국 10주년 특집 기획으로 10인 작가들이 '임진강'이란

주제로 한 달씩 이어갔는데 김영수, 추 식, 이용찬, 이경재, 양근승, 백 결, 차범석, 신봉승, 한운사, 이재우 씨 등이 집필했다..



악필惡筆으로 유명한 작가는 '분례기', '익살로 한 세상'을 쓴 **신명순** 씨, '태권동자 마루치' 사랑의 계절 '태위도 태위도 재가 되지 않은'의 **정하연** 씨(원고, 사진), 초록색 잉크에 신선한



감수성과 경쾌한 문체로 시원스럽게 써내려간 '야생마' **김기팔** 씨(사진) 등인데, 좀 과장한다면 암호를 해독하는 수준이라고나 할까..

작가에 따라 집필하는 장소도 다양했다. 자택 아니면 작가실이 대부분이지만, 다방이나 사무실, 여관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었다. '전설따라 삼천리' '무지개 마을'을 집필한 **민병훈** 씨는 방송국 근처 여관의 밥상에 앉아야 정신집중이 되는 스타일이다. 박경리 씨의 '토지'를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 예술성 깊은 드라마를 썼던 **구석봉** 씨(사진)는 '전설 따라 삼천리'를 집



필할 무렵 기관지 천식과 폐기종을 앓아 공기가 좋은 북한산성 입구 외판 산자락으로 거처를 옮겨 몸에 좋은 각종 약재를 구해 먹으며 집필했다. 한 번은 약으로 구해온 오소리가 밤사이에 새끼를 낳았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바람소리, 새소리와 더불어 원고를 쓰니 참 좋다'고 하던 작가님은 52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작가의 원고가 늦어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담당 PD. 성미 급한 PD는 근처 여관으로 작가를 모시고 가서 함께 원고를 쓰기도 했다.

잠시 옆길로 빠져, MBC 하면 떠오르는 '전설따라 삼천리'는 효과음의 산실이였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유기현 씨의 구수한 해설이 시작되면 상상을 초월한 음악효과와 음향효과가 뒤를 따른다.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소리, 산신령이 나타나는 음향, 산짐승(여우, 늑대, 곰 등등등), 집에서 키우는 소, 돼지, 닭, 개소리, 우는 소리에 따라 슬퍼하는 소린지 반가워 우는 소린지...효과 채집에 온 힘을 쏟았던 **한웅연, 조병식, 김주식, 차부안, 조문형, 엄기혁** 씨(사진) 등이 생각난다.



1969년 '저 눈발에 사슴이'로 방송에 데뷔, 지금도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는 **김수현** 씨는 예쁜 글씨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언제나 군더더기 없이

딱 짜인 구성과 감칠맛 나는 대사와 적절한 비유를 구사했다. 대사를 속사포처럼 쏟아놓기도 하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연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성우가 대본에 나와 있는 인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연기자 자신을 질책하는 대사를 넣기도 하는 등 작품에 대한 작가의 자부심은 존경스러운 정도였다.

말수가 적고 속정이 깊은 저력있는 작가 **김문영** 씨는 '은하철도 999' '집념' '심야극장'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30년' 등 장르를 넘나들며 청취자들을 사로잡았다. 70년도부터 집필, 현역으로 활동하는 **박정란** 씨(사진)는 '무지개 마을' '사랑의 계절'을 집필



하며 적절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 손톱과 입술을 뜯는 버릇 때문에 원고를 쓸 때는 무고한 입술과 손가락이 수난을 당한다. 희망, 소망, 구원을 제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는 그녀는 심성만큼이나 가슴 따뜻한 얘기들을 엮어냈는데 패션 감각 또한 남달랐다. 안경은 눈 나쁜 사람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나

는 박정란 씨를 통해 '의상에 따라 안경도 달라짐'을 배웠다. 그녀는 골프를 70년대에 시작했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도 갖고 있어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존경스럽다.

젊은 날에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목소리로 인기를 독점하던 **고은정** 씨는 어느 해 MBC 라디오 극본 공모에 가명으로 당선되어(대니 할머니) 방송국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더니 이후 '사랑의 계절' '일요소설' '부부' '청소년 극장' 등 장르와 내용을 불문하고 거침없는 필력을 휘둘러 도무지 내공의 깊이를 짐작할 수조차 없게 했다. 또 한 사람 예쁜 글씨를 쓰는 **양인자** 씨(사진)는 '작은 연인들' '저 별은 나



의 별' 등 멜로드라마를 주로 썼는데, 드라마의 주제가에 특히 강한 그녀는 드라마 주제가 작곡으로 유명한 **김희갑** 씨와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한 뒤 결혼하여 현재 최고의 음악저작권료를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겸손하고 심성이 고운 전직 고교 교사

이금림 씨(사진)는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사랑의 계절', '부부' 등에서 다루기 힘든 고뇌, 인고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네

의 한을 속 깊은 감성으로 잘도 써오곤 했다.

'라디오 삼국지' '신춘향전' 등 고전을 구수하면서도 순발력 있게, 또 예리하고 톡톡 튀는 대사를 구사하는 **윤정진** 씨(사진)는 심성이 따뜻하고

순박하며 겸손한데, 집중력만큼은 대단한 분이다. 한참 많이 쓸 때는 하루에 200자 원고지 200장을 집

필하는가 하면, 3시간짜리 방송 '상처 받은 나의 노래'는 작가실에 와 불과한 시간 반 만에 탈고하는 괴력을 보여줬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나처럼 많은 대가들의 육필 원고를 접한 사람이 또 있을까, 참으로 귀하고 보람된 날들이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지금은 대본 대신 성경을 온라인으로 쓰고 또 쓰고 있다.

실속 있게 보낸 나의 여름휴가



김 휴 선 (보도)

다. 이번 여름 한참 더울 때 안사람과 나는 2주간을 이렇게 보냈다.

용산역에서 오전 10시에 경의선 지하철을 타고 출발한다. 대개 경로석 자리는 비어 있다. 냉방시설도 잘 돼 있어 책 읽기는 그만이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러시아의 맥베스부인' 그리고 펄버의 '대지' 1권과 2권, 3권을 모두 다 읽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지만 전쟁이야기 게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번 휴가철에 다시 한 번 읽었다. 거기에서 펄버의 대지도 한 번 더 읽었다.

펄버의 대지에 나오는 '왕룡'과 '오란'의 생활은 마치 나의 부모님이 살

아 온 일대기를 그린 것 같아 정감 있게 읽었다. 가난하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 일만 죽도록 하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읽었다. 물론 오란과 같은 우리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와 닿는 글이었다. 뒷부분 2~3권에 나오는 자식들의 내용도 끝까지 다 읽었다. 여기에 니콜라이 레스코프가 쓴 '러시아의 맥베스부인'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태기가 부른 치명적 유혹'이라는 점에서 흥미 있게 읽었다.

책을 보며 용산역에서 1시간 10여분을 가다 보면 어느새 용문전철역이 나온다. 매년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 용문산 계곡을 찾는 우리부부는, 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기가 좋겠네' 음식점 셔틀버스를 탄다. 10여분 후쯤 음식점에 도착했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을 섰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1000여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온다고 한다. 식단은 그 곳 양평에서 나는 채소로 만든 한식 뷔페

다. 7천원짜리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식당 앞에서 버스로 용문사 입구까지 데려다 준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주 한 병에 1천원 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2천원으로 올랐다.

일주문에서 절까지는 약 2km가 될까 말까. 계곡은 폭이 20m에서 50여m가 되는 듯하다. 협곡과 바위들로 된 큰 계곡이다. 거기에서 계곡 양 옆으로는 수백년 묵은 소나무와 잣목들이 하늘을 뒤 덮고 있다. 쉬기에는 그만이다. 용문산 정상(해발 1157m)에서 흐르는 계곡 물은 1100년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용문사 은행나무 밑을 통과한다. 길옆 도랑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바람 소리, 새소리와 함께 하모니를 이룬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가면 더욱 좋다. 준비해온 돗자리를 깔고 잠시 계곡물을 쳐다 보면서 땀을 식힌다. 맑은 계곡물에 담구고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휴가는 잘 보냈다. 2주만

에 읽은 책이 자그마치 6권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돈을 적게 들고 소양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계곡을 빠져 나와 20여분을 걸어서 일주문으로 향한다. 역시 음식점에서 나온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다시 전철역까지 공짜로 데려다 준다. 7천원 주고 점심 한 끼 사먹고 나면 올 때 갈 때 교통비는 해결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금년 여름휴가는 실속 있게 보냈다. 지난 7월 말인가 8월초에 어느 TV 뉴스를 봤더니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피서 인파만도 하루에 20만명이 넘어 개항 이래 최고라고 한다. 피서는 문자 그대로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돈 들고 피서 가는 것을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피서지와 아름다운 계곡이 얼마든지 있다. 돈 적게 들고 더위 피하며 실속 있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많다.

소설 삼국지, 소설 대한민국



양영철(보도)

삼국지(정확한 명칭은 삼국지연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 가운데 하나다. 1,800년 전 중국 대륙에서 3국이 각축을 벌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인 이 소설은, 민초들이 오랜 전란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영웅들이 펼쳐는 무용담이 미화된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어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소설 삼국지의 내용 중 많게는 70% 정도가 실제와 달리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 큰 줄거리는 사실이지만 소설의 하이라이트인 적벽대전 등의 에피소드에서 많은 부분이 실제와 달리 과장, 왜곡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허구가 많은 부분은 무장 관우에 관한 내용이다. 관우는 무용(武勇)과

의협심이 뛰어난 인물로 미화되어 오늘날까지 민간에서 신(神)으로 떠받들려질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문성(文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공자와 쌍벽을 이루는 무성(武聖)으로 존경받고 있다. 심지어 관제(關帝)라고 호칭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의 화교 거주지에는 관우의 사당인 관묘(關廟)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동묘를 비롯해 여러 곳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일본에도 요코하마, 고베 등 중국인 거리에 관묘가 있다. 사실 관우는 용맹하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지만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 오만한 나머지 오나라를 가볍게 알다가 급기야 자신이 지키던 형주 땅을 빼앗기게 되고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며 이로 인해 촉나라가 쇠망의 길로 접어드는 화(禍)를 불러왔다.

제갈량 역시 신출귀몰한 전략가로 지나치게 미화되었는데, 역사가들은 제갈량이 전략을 세우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장수로서의 지략보다는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은 편이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오나라의 노숙은 소설에서 무능하고 사람만 좋은 무골호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노숙은 원대한 포부와 지략을 갖춘 인물로 역사는 서술하고 있다. 흔히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제갈량이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숙이 제갈량보다 7년 앞서 구상을 펼쳤다고 한다. 노숙의 구상에 따라 오나라는 촉과 동맹을 맺고 위나라를 견제하여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어둠으로써 3국 정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간웅(奸雄)으로서 온갖 악행을 자행한 것으로 묘사된 조조는 난세를 평정한 개혁가일 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조비, 조식과 함께 3부자가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서 문학을 크게 융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가 새삼 삼국지를 가지고 역사적인 분석 및 평가를 소개하는 것은 실제 역사보다도 문학 작품 및 일반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서

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진실로 인식되어 전파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수천 년 전 이웃 중국에서 벌어진 삼국시대의 역사가 왜곡 변형되어 진실이 허위로, 허위가 진실로 둔갑하여 전해내려 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새삼 오늘의 세태를 돌아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하여 소설 같은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이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가세해 어느 한 편으로 경도되어 제작된 영화와 문학작품들이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하루하루의 뉴스가 모아져 역사를 이룬다. 올바른 역사가 후세에 전해지려면 매일 매일 뉴스를 만들어 전달하는 방송, 신문 등 정통언론이 중심을 잡고 사실보도, 공정보도라는 본연의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남이섬에서 만난 MBC



유효근(관리)

워크숍을 남이섬으로 결정했다. ‘남이섬에 언제쯤 갔었나’ 되짚어 보니 10년 전쯤 아들이 어렸을 때 가 봤고, 이후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뉴스로만 접했다.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지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나만 보면 밥 달라는 남편과 과묵한 아들놈을 남겨두고 한나절 동안 콧바람을 쐬는 생각에 신이 났다. 까악! 넘 좋아.....

10년 전쯤엔 교통수단이라곤 딱 하나. 배를 타야만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와 짝 와이어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 10~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동안 뜨거운 햇빛도 가려질 만큼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트리기도 지나가도 즐겁다. 오랜만에 본 남이섬은, 조금씩 변화를 주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변했다는 생각을 들지 않는다. 사진을 찍을만한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고 토끼, 다람쥐, 꿩이 자유롭게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닌다는 점이 새로웠다. 메타세콰이어 길, 은행나무 길을 걸어가며 바닷가도 아닌데 “나 잡아 봐라”를 해보고 싶었지만 워크숍 강의 시간에 늦으면 안된다는 재촉에 발걸음을 빨리하다 본 건물이 NAMBC다. “어?” 두근두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첫사랑처럼 내 눈에 박힌 ‘NAMBC’라는 글자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고 시선이 쏠렸다.

“뭐지?”

갑자기 만난 첫 사랑에 대한 궁금증. 강의에 늦었다면서 일행이 잡아끄는 바람에 끌려가면서도 눈을 땔 수 없다. 아쉬웠지만 워크숍이니 어쩔 수

없었다.

“I’ll be back”. 터미네이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다짐하듯이 나도 엄지를 척 들어올렸다.

드디어 주어진 자유 시간. 일행들은 멋진 포인트에서 사진 찍기에 바빴지만 난 NAMBC로 뛰어갔다. 멋스럽게 지어진 목조 한옥 스타일의 단층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영애와 유재석이 반긴다. 남이섬과 MBC가 함께 설립한 방송체험시설이다. 두 명 또는 세 명이 팀을 이뤄서 신청하면 누구나 앵커와 리포터가 되어 뉴스 아이템을 진행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뉴스 룸과 편집기기 2개의 부스



로 꾸며져 있어서 다양하거나 많은 체험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뉴스 룸을 보는 순간 반가웠다. 아침, 오후, 저

녁, 밤 시간대에 뉴스센터 부스에서 프롬프트를 맡았었다. 뉴스가 끝날 무렵 자막으로 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딱 한 곳 아침 뉴스에서는 자막에 ‘프롬프트 유효근’ 이라고 이름이 나왔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뉴스 말미 자막으로 나오는 내 이름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다. 어느 팬가 자막으로 흐르는 내 이름을 봤다는 말에 난 별거 아니라는 듯 ‘뭘 그걸 갖고 그래’ 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그 장면을 녹화해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엄만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아들놈에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20대와 30대 중반까지 다닌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라서 더 기억에 남고, 길을 가다 MBC 로고만 봐도 첫사랑을 만난 듯 설렌다. 비록 첫사랑은 내게 말을 건네지도, 아는 척도 해주지 않지만 짝사랑을 앓는 수줍고 풋풋했던 그 시절 그대로 난 첫사랑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개그맨이 여자 친구를 향해 주구장창 외쳤던 말을 내 첫사랑에게 해주고 싶다.

“MBC FOREVER”

알프스 - 그 영원한 매력



유 희 근 (보도)

1. 몽블랑

지구상에 알프스가 있다는 건 인류에게 행운 중의 행운이다. 그 높은 봉우리에 전문 산악인이 아닌 나같은 보통사람도 올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만년설과 빙하와 눈 덮인 수많은 연봉連峰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쾌감과 감격을 느낀다.

“알프스” 하면 역시 몽블랑이다. “하얀 산”이라는 뜻의 몽블랑은 4,807미터. 알프스 산 중에 최고의 높이를 자랑한다. 여름엔 피서객과 등산객, 겨울이면 스키어들로 넘치는 프랑스 제일급 휴양지 샤모니에서 올라간다. 케이블카를 타고 1시간, 흰 눈과 푸른 초원이 조화를 이룬 장면은 환상적이다. 해발 3,842미터 높이에서 만년설에 덮인 산봉우리와 유유히 흘러가는 빙하를 바라보며 감탄하다가 여기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더 올라가면 끝없이 이어지는 빙하가 햇빛에 반짝이

고, 저 멀리 이탈리아가 보인다. 이 코스는 여름에도 빙하를 타고 내려가는 스키어들로 붐빈다. 스키어도 아니고, 산악인도 아닌 일반 관광객들이 4천 미터나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수 만년 흐르는 빙하와 눈 아래 펼쳐지는 황홀한 자연에 감동하고 세계를 여행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2. 융프라우 요크

과거엔 프랑스 쪽 몽블랑이 관광코스였으나 이젠 스위스 쪽 융프라우가 더 인기 있다. 4,158미터 융프라우는 등산열차를 타고 오르기 때문이다. 브리엔츠 호수와 툰 호수를 양쪽에 끼고 있어 더욱 아름다운 인터라켄에서 출발한다. 그린델발트를 거쳐 클라이네 샤이텍까지 오른 다음, 바뀌 탄 열차로 7.2km나 되는 터널을 지나면 드디어 환상적인 융프라우 요크에 도착한다. 얼음궁전에 놀라면서 스핑크스 전망대에 올라가면 즐거움은 극치에 달한다.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알레치 빙하를 바라보는 스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6년의 긴 공사 끝에 1912년, 해발고도 3,454미터까지 열

차궤도를 설치했다. 104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기차역을 만들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등반열차를 운행했다. 경탄할 일이다. 스위스 용병이 세계에서 가장 용감했다고 하지 않던가?

3. 산의 여왕 “리기 쿨름”

융프라우보다 먼저 산악열차가 가설된 곳이 있다. 해발 1,800m의 리기 쿨름이다. 1871년이니까 145년 전이다. 스위스 휴양도시 루체른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비츠나우에서 빨간색 열차를 타고 오르면서 멀리 눈 덮인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노라면 어느덧 정상에 올라와 있다. 3,4천 미터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하늘을 둘러싼 장관을 바라볼 수 있는 리기산山. 그래서 리기산을 “산의 여왕”이라 부른다.

산 아래 13개의 호수엔 유람선이 유유히 지나가고, 호수 주변엔 보석처럼 알알이 박힌 예쁜 집들이 마치 동화의 나라에 온 듯 착각을 일으킨다. 윌리엄 텔 이야기와 윌리엄 텔 서곡이 귓가에 맴돈다. 중간 역 칼트바트에서 잠깐 내려 야외 온천을 즐긴다.

여기서부터는 케이블카로 바뀌 탄다. 멀리 흰 눈 덮인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그 아래 짙푸른 피어발트 쉬테터 호수가 막힌 가슴을 후련하게 뚫어준다.

4. 산악 관광 코리아

나는 기회만 있으면 알프스를 찾는다. 21번째 유럽을 방문하면서 이번에도 또 갔다. 여섯 번째다.

우리도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명산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천 미터 넘는 높은 산에서, 금수강산의 사계절을 즐기기가 어렵다.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환경논리가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선례를, 알프스는 물론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에서 볼 수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오스트리아의 “잘츠감마곳”에도 케이블카요,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에도 케이블카요, 캐나다의 “밴프”에도 케이블카다. 우리도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멋지게 개발해서 세계적인 산악 관광지로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7천평의 넓은 대지에
잔디장,수목장,봉안당
모두 갖추어진
국내 최초, 최대의
친환경 추모공원입니다.

MBC사우회원 이용시 착한가격으로 파격적 대우!!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고요함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중앙추모공원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고객상담전화 031-833-7737, 7738

주소 : 경기도 미산면 백석리 313-1 [마유로 58-38]
E-mail : cmp5838@naver.com / Fax : 031-835-7737